

1950년대 독자의 요구와 작가 — 『사상계』와 김성한 —

정 보 람*

요 약

김성한은 1955년 『사상계』에 입사하여 주간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잡지의 기획과 편집에 깊게 관여했다. 『사상계』는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시민 계몽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김성한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계몽’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었다. 독자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요구했다. 김성한은 잡지의 편집자이자 작가로서 지식인의 욕망과 독자의 욕망을 모두 조율하며 작품을 썼다. 그의 소설은 바로 독서 시장에 표출되던 이 두 가지 요구가 만나 생성된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한이 『사상계』에 근무하는 동안 해당 잡지에 발표한 작품인 『제우쓰의 자살』, 『오분간』, 『바비도』를 잡지에 실린 다른 글과 함께 놓고 그 상호관계 속에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세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잡지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했다. 세 작품은 민중에게 내재된 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의 형상을 역설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김성한의 소설이 추상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당대성과 현실참여의지를 담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김성한, 1950년대, 사상계, 제우쓰의 자살, 오분간, 바비도, 독자, 시민, 계몽

* 이화여자대학교국어국문학과초빙교수

목차

1. 시대성과 문학의 연결고리: 시민 계몽의 대의와 작가의 위치
2. 힘에 대한 자각과 갱신의 요청: 『제우쓰의 자살』, 『오분간』
3. 행동하는 개인과 허무주의 배경: 『바비도』
4. 결론

1. 시대성과 문학의 연결고리: 시민 계몽의 대의와 작가의 위치

김성환은 1950년대 한국 소설을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작가이다. 1950년에 문단에 나온 그는 ‘해방 이후 십년간 가장 우수한 신인 작가’라는 평을 받으며 1956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¹⁾ 뿐만 아니라 김성환은 1950년대 신진작가군을 거론할 때 반드시 호명되는 작가였으며²⁾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성환의 작가론을 구성할 때 또 하나의 주요한 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행보이다. 그는 1955년 『사상계』에 입사하여 주간으로 근무하면서 잡지의 기획과 편집에 깊게 관여했다. 그리고 그가

1) “우선 제1회의 상은 8·15 이후 십여 년간에 새로 나온 작가들 전원을 수상대상자로 하고서 심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4차 회의 끝에 김성환 씨가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에 심사원 전원의 의견은 일치되었었다.” (『동인문학상 수상작품선 후평』, 『사상계』 1956년 5월호, 276면)

2) 백철은 『신세대적인 것과 문학』(『사상계』 1955년 2월호, 34면)에서 신진 작가군을 신세대라는 군집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고 이후 발표한 『신인과 현대의식』(『조선일보』 1955년 10월 27일)에서 김성환을 손창섭, 장용학과 함께 비중 있게 다룬다. 이봉래 역시 『신세대론』(『문학예술』 1956년 4월호, 135면)에서 김성환을 신세대의 주요 작가로 분석한다.

주간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 지면에 그의 대표작들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김성한의 작가의식을 추적하는 데에 있어 『사상계』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사상계』의 영향력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구된 바 있다. 『사상계』는 1950년대 한국 사회에 학술적 전문지식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필수적 교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³⁾ 발행인 장준하의 회고에 따르면 1953년 창간 당시 3천 부를 겨우 감당할 정도였던 판매고는 1955년 6월호부터 8천 부를 돌파하고⁴⁾ 같은 해 10월에는 9500부, 1957년엔 4만 부에 이른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전지식층의 관심을 한몸에 모은 잡지”가 된 것이다.⁵⁾ 독자통신의 투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상계』의 독자층은 학자, 학생, 교사 등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농부, 가정 주부,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역도 서울뿐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까지 두루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사상계』가 대항 잡지로서 민주주의 개념 보급과 더불어 현실 정치에도 개입했다는 분석⁶⁾에서도 알 수 있듯 『사상계』는 높은 대중적 지지

3) “고급교양지로서는 우리나라에 아마 『사상계』가 유일한 존재인가 합니다.” (독자통신, 1955년 2월호) 이 글은 2차 대전 이후 서구 사조의 흐름에 대한 글을 요청한다. 대학 수업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양 지식을 『사상계』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이다. 같은 지면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귀지(貴誌)는 우리 겨레의 마음의 등불인가 합니다.”라고 한 독자 투고도 있었다. 여기서 잡지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상계』과 시민 교양 함양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김미란,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 방식 - 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8(2), 대중서사학회, 2012, 196-198면.

4) 『학생에게 보내는 특집』으로 엮은 것이 일주일 만에 6천 부가 매진되고 재판으로 찍은 2천 부도 매진되었다. (장준하, 『브니엘』, 『장준하전집 3 : 민족주의자의 길』, 세계사, 1992, 296면)

5) 장준하, 위의 글, 317면.

6) 이용성,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잡지 연구』, 한서대학교출판부, 2012.

도를 바탕으로 당대 여론을 이끌었다.

『사상계』를 이끌어간 필진은 이념적 지식인 집단으로 규명되고 있다. ‘국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 집단, 혼란한 시기에 사명감을 가진 지식인 집단이라는 설명들이 대표적이다.⁷⁾ 『사상계』의 필진이 하나의 이상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쓴 글들 역시 동일한 사명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권두언은 매호 잡지의 첫머리에서 기획의도를 밝힌다.⁸⁾ 그런데 권두언은 장준하뿐만 아니라 잡지의 필진이 공유하는 바였던 만큼 권두언에서 표명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주장, 교육의 필요성은 그들 모두의 이념이기도 했다. 특히 김성한은 그러한 이념 형성의 중심에 있었다. 『사상계』의 권두언을 장준하 대신 쓴 적도 많았으며 매달 권두에 실렸던 「사상계 현장」도 김성한의 글이다.⁹⁾ 특히 「사상계 현장」은 잡지 편집위원들이 공유하는 발행취지와 현실인식, 사명감이 그대로 담겨 있다. 현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모독과 굴종으로 얼룩진 과거와의 결별과 개혁이다. 그것을 위해 사적 탐욕보다 공적 대의를 앞세우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제시된다. 현장은 『사상계』를 “지적 소산을 매개하는 공

101-102면.

- 7) 국민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해야 하는 특수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올바른 국가관, 국민관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철호, 『『사상계』 초기 서북계 기독교 엘리트의 자유민주주의 구상』,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55면.
윤상현,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 한림과학원, 2013, 50면.
- 8) 그렇기에 권두언 중심으로 발행인 장준하의 정치 이념을 규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논문에서 장준하가 추구한 민주주의 개념은 크게 민권, 민의, 법치로 나뉘어 설명된다.
김대영,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2) :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12(2),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3, 162면.
- 9) 『광복 50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 20주기기념추모사업회, 1995, 16면.

기(公器)”로서 규정하고 “민주사회 건설”에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현대사에 발맞추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고 계몽하는 것이 잡지의 나아갈 바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상계』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김성한의 소설을 독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길잡이로서 중요하다. 그가 편집위원을 대표하여 이 글을 쓴 이이자 같은 지면에 소설을 발표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그가 작가이자 편집자로서 『사상계』 내부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독해할 때 그의 소설이 함의하는 바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본고가 김성한의 소설을 『사상계』의 글과 함께 놓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독해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사상계』는 지식인으로서의 선도 욕망과 사명감을 갖고 당대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태도를 독서 대중에게 공급했다. 다만 이 시기의 ‘계몽’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독자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양에 목말라 있었으며 『사상계』를 통해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므로 『사상계』의 영향력에 대해 논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시기 독서 대중의 특성이다. 대중에게 정치적 결정권이 최초로 부여된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정치적 열망은 매우 강력했지만 동시에 미숙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대중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독서를 통해 얻길 원했다. 『사상계』의 독자 통신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겨레의 갈 길을 밝힐 지성이 결여된 나라를 가히 맹국(盲國)”이라 빛대면서 “그래도 가느다란 생명이 움트는 것, 그것이 『사상계』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¹⁰⁾라고 이야기하는 독자가 이 잡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매우 분명하다. 또한 『사상계』가 “인간의 자유권인

10) 독자통신, 1955년 4월호.

언론출판의 자유를 사수”¹¹⁾하고 있다는 말은 잡지가 독자를 대리해 의견 표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 다시 말해 잡지를 독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사상계』는 독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잡지의 편집 방향은 초기 전문학술지의 성격에서 점차 변화해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한 시민 교양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독자들의 요구와 관계가 있으며 그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¹²⁾ 국가, 권력, 법, 정치 등의 개념을 다룬 글과 정세에 대한 시론들은 대중이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 교양의 측면이 강했다. 다시 말해 독자들은 ‘사회가 나아갈 길을 밝히 아는’ 지성에 대한 욕구, 즉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한국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었고 『사상계』는 거기에 호응했다. 독자통신란은 독자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편집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요구 사항을 실제 반영했음을 보여준다.¹³⁾ 편집부는 1955년 신년 인사에서도 독자와 잡지의 일체감을 여러 번 강조한다.¹⁴⁾ 『사상

11) 위의 글.

12) 김미란, 앞의 논문, 211면.

위 논문에서 논자는 이러한 변화를 “시대적 요청”이라고 표현한다. 사상의 모색에서 더 나아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적 도구를 획득”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읽을 수 있다. 또 이 변화는 『사상계』가 독자층을 학계에서 대학생과 30대 지성인으로 변경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같은 논문, 218-219면)

13) 1955년 7월호 독자통신에서 편집진은 “본지는 항상 여러분의 소망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명언하여 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진중히 받아들여 편집면에 즉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꾸준히 보폭을 같이하여 전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힌다. 편집부는 독자와의 일체감과 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독자의 소망대로’ 움직이는 잡지가 될 것임을 약속한다. 이후로도 독자통신을 통해 독자들의 요구와 수용 상황을 밝힌다.

14) “그러나 이 등불이 온 거래의 가슴 속에 밝혀지고 봉화로 교양되는 것은 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전지성인의 과업인가 합니다. (중략) 우리가 처해 있는 금일의 처지와 더불어 그 역사적 연유를 구명하는 것을 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공동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중략) 이와 같은 취지하에 금년도 『사상계』는 전과 다름없이 명실상부한 여러분의 잡지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동이 요청됩니다. (중

계』의 존속이 전적으로 독자의 지지에 달려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¹⁵⁾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그들이 제시한 교양의 내용도 당시 독자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것일 수 없었다.

독서 시장을 구성하는 요건이 수요자인 독자와 공급자인 저자일 때 『사상계』라는 매체는 양방향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창구로서 기능했으며 당대 독서 시장의 중앙에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잡지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1950년대 초반에는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마땅한 출판물을 구하기 어려웠기에 신문과 잡지 자체가 매우 희소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용지 공급이 원활해지고 여러 잡지가 출판되었다. 이러한 출판계의 격변과 경쟁구도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사상계』의 독자층은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급속도로 확대되었음은 이 잡지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

이 과정에서 문학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당대 문학 지면의 확장은 거의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에서 일어났고 대부분 대중성의 확보, 즉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독 『사상계』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권두언 「문학의 바른 위치를 위하여」(1955년 2월호), 「문학과 문학인의 권위를 위하여」(1955년 7월호)는 민족 문화의 결실로서 문학의 공리적 기능을 부여한다. 최재서의 「문학의 목적·기능·효용」(1956년 5월호)은 훌륭한 문학은 의도하건 아니건 언제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사상계』의 편집 방향에

략) 독자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즐기차게 전진할 것을 기약하는 동시에 (후략)" (독자통신, 1955년 1월호)

- 15) 발행인 장준하가 잡지 발행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준 이들은 그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몇몇 인사였고 특정 단체나 정부 기관의 도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잡지는 전적으로 독자가 지불하는 판매대금에 의해 지탱되었다. 때문에 『사상계』는 독자 확대를 위한 구독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장준하, 앞의 글, 302-304면)

문학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이유 역시 시민 계몽이라는 대의에 문학이 담당하는 역할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상계』의 발행 부수가 크게 증가한 시기가 소설 비중이 확대된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¹⁶⁾은 이러한 의도가 독자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성한은 『사상계』의 초대 주간이자 작품을 쓰는 소설가였고 그 이중적인 위치가 갖는 함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김성한은 독서 시장의 공급자인 편집자로서의 의식과 함께 독자를 향해 이야기해야 하는 작가로서의 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며 두 가지 의식을 조율하면서 문학적 가능성을 실험했다.¹⁷⁾ 본고는 김성한이 『사상계』에 근무하는 동안 해당 잡지에 발표한 작품 세 편 「제우쓰의 자살」(1955.1), 「오분간」(1955.6), 「바비도」(1956.5)를 대상으로 하여 잡지의 다른 논설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김성한의 작가론을 『사상계』의 주간 경력과 연관 지어 접근한 연구는 김건우¹⁸⁾와 김진기¹⁹⁾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건우는 그 당시 소설의 경향을 ‘지식인 소설’로 규정한다. 김성한을 『사상계』지식인 그룹 안에 놓고 김성한의 소설을 지식인의 현실 비판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김진기는 김성한을 “『사상계』의 이데올로그”로 규정했는데 이는 김성한과 『사상계』필진들과의 사상적 일체감을 알려준다.

16)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167면.

『사상계』에 실린 작품들이 대중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품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17) 김성한이 주간으로 취임한 1955년 1월호부터 문학의 비중이 커진다. 1월호는 전체 190면 중 47면이 문학란이었고 2월호는 문학 특집호로 발행되었다. (장준하, 앞의 글, 291면)

18) 김건우, 위의 책, 176-185면.

19) 김진기, 「김성한 소설의 자유주의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253-254면.

또한 두 연구는 모두 『사상계』라는 잡지가 추구하던 이념을 ‘자유주의’로 파악하고 김성환의 소설 역시 자유주의를 구현함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사상계』와 작가의 상호 영향 관계를 매우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작가 이해에 크게 기여했으며 본고 역시 두 연구에 기댄 바가 크다. 다만 ‘자유주의’라는 틀 안에서 소설을 분석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의한 다소 도식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 김성환의 개별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본고가 극복하고자 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본고는 소설과 소설을 둘러싼 당대성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김성환의 소설이 담고 있는 주제 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김성환의 소설에는 추상성이나 비판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 역사로의 퇴행 등의 비판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사상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볼 때 김성환의 소설은 논설들과 하나의 연합된 의미망을 형성하면서 그 구체성과 시의성을 확보한다. 이처럼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작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힘에 대한 자각과 갱신의 요청 - 「제우쓰의 자살」, 「오분간」

1954년 11월 자유당의 독단으로 야기된 일명 ‘사사오입 개헌’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선명성이 뚜렷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독재 의도가 노골화됨에 따라 보수적 정치 세력으로 변별점을 갖지 못했던 민주당이 자유당과 대척점에 서면서 야당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이로써 정치적 지향에 따라 지지계층이 변별되는 정당정치체적 질서가 생겼다.²⁰⁾ 자유당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생산되는 것

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개헌 시비가 불거지자 『사상계』에도 법을 다루는 글이 게재된다. 1954년 9월호에 발표된 「개헌문제시비론」이 그것이다.²¹⁾ 이 글은 자유당이 1954년 민의원 선거를 장악하여 개헌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우려로 시작하여 전국민이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만큼 법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나아가 그러한 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개념이 제시된다. 법의 지배 아래 있지만 동시에 법의 결정권자인 ‘국민’ 개념이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의 정당성 역시 국민의 의지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글은 그것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의 질문으로 되묻는다. 이와 함께 ‘법’은 절대불변의 명령 체계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사상계』 권두언 「사회와 질서」(1953년 5월호)에서 “보다 합리한 ‘법칙’ 위에 정당한 ‘질서’가 수립되어진 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한다는 구절이 말해주듯 질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화를 인정하지 않는 통일, “일당독재와 만승천자를 점치는” 듯한 태도는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개헌문제시비론」에 이르러 법과 인간 사이의 상호구속적 관계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권력의 핵심에 지배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을 놓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할 때 법의 문제에 민중의 능동적인 개입이 가능해진 다. 이는 당시로서는 낯선 개념이었다. 봉권적 권력은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봉건성에서 탈피한 새로운 법의식은 민중의 힘이 가시화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의식의 개혁이다. 그러므로 이 낯선 개념 역시 시민 계몽의 주요한 과제

20) 윤상현, 앞의 논문, 54면.

21) 이호준, 「개헌문제시비론 - 개헌이 민권을 수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 검토」, 『사상계』 1954년 9월호, 140-141면. 그 전에 실린 법에 대한 글은 1954년 2월호에 실린 수필 「헌법의 이모저모」가 있다.

로 주어지는 것이다.

『제우스의 자살』의 첫 문장은 “개고리들은 제멋대로 살았다.”이다. 얼룩개구리는 왕을 세워 “무질서를 질서로 정돈”할 것을 제안하고 왕을 청하러 제우스신을 찾아간다. 처음 온 왕은 통나무였다. 그러나 얼룩개구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 통나무, 즉 ‘왕답지 못한’ 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왕을 청하러 간다. 그러자 이번엔 황새가 왕으로 온다. 황새는 독단적으로 계급과 규칙을 정하고 잔악무도하게 개구리들을 학살한다. 견디다 못한 개구리들은 새 왕을 청하러 다시 제우스신을 찾아간다. 제우스는 질서의 정점, 즉 질서를 구획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다. 다시 말해 통나무와 황새가 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권력이다. 권력을 창출하는 원천으로서의 권력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제우스는 모든 권력은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며 그 자신 역시 ‘의식의 조작’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저희들은 제우스신을 저희들의 주, 전지전능의 신으로 알았습니다.”

(중략)

“결국은 나는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의식의 조작이다. 의식에 뿌리박은 노예근성의 조작이다!”

(중략)

“허나, 바로 이 점에, 이 융통성에, 너희들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만든 것을 부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제우스의 자살』, 143-144면)

제우스로부터 자신을 때리고 물어뜯으라는 명령을 받은 개구리들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결국 그 명령에 따른다. 그러자 제우스는 사라진다. 권력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권력을 ‘전복시키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권력 자체의 속성, 즉 권력

을 만든 존재가 바로 권력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역설이자 하나의 가능성이다. 권력을 결정하는 주체가 피지배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유통성”의 내용이다. 권력은 절대적이거나 완전무결하지 않으며 권력 구도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바로 그렇기에 제우스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1954년의 개헌 시비는 국민들로 하여금 ‘법은 누구/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가?’ 혹은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게 했으며 그 질문의 답은 피지배자, 즉 민중에게 있다. 『제우쓰의 자살』은 바로 그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실 처음부터 개구리들이 제우스의 일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이미 통나무와 황새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권력을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대체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권력이 대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 앎을 바탕으로 왕을 교체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 하나, 그들의 힘으로 교체할 수 없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다. 자신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바는 매우 크다. 권력에 대한 인식이 ‘힘’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우쓰의 자살』에서 제우스는 “간악도 힘이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이기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143면) 라고 말한다. 힘과 힘의 갈등으로 권력을 이해하는 것은 곧 절대적인 권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대항적인 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1953년 5월호에 실린 『민주 정치와 폭력』²²⁾은 폭력을 수반한 항거에 대해

22) 신상초, 『민주 정치와 폭력』, 『사상계』 1953년 5월호, 52-53면, 55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가가 독재화되었을 경우에는 폭력을 통한 항거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여 뒤 1955년 5월호에 실린 같은 저자의 글 「법·국가·질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이며 정의가 담긴 질서를 위해 변혁의 가능성을 인정한다.²³⁾ 이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와 이에 대한 경계, 그리고 대항적 힘의 자각이 『사상계』 내부의 공통적인 인식으로 줄곧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힘’이라는 단어는 『사상계』에 실린 다른 글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민주 정치와 폭력」에서 독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인민대중이 유일하며 그들의 폭력항거는 “법과 질서의 진정한 수호를 의미”하고 “정의는 ‘힘’을 통해서만 성립”된다.²⁴⁾ 즉,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의 필요성과 그 정치를 이루는 것이 힘과 힘의 갈등임을 정식화한다. 이러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계기가 개헌을 둘러싼 갈등에 있었다고 볼 때 「개헌문제시비」에서 유권자를 “불순·부정한 헌법 개정을 저지하며 정당 필요한 개정을 촉진할 힘을 가”²⁵⁾진 존재로 칭한 것도 그 함의가 크다. ‘힘’이라는 단어의 사용법이 소설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김성환은 다른 지면에서 문학을 하나의 ‘힘’으로 언명했다.²⁶⁾ 문학 역시 하나의 대항적 힘으로서 민중의 주체화에 긴밀하게 호응한다는 작가의 인식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소설과 논설이 공유된 인식 체계 속에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23) 신상초, 「법·국가·질서」, 『사상계』 1955년 5월호, 12면.

24) 신상초, 「민주 정치와 폭력」, 55면, 59면.

25) 이호준, 앞의 글, 141면.

26) “문학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락에 그치지 않고 악을 제거하고 미를 고취하는 한 개 힘(Power)으로서 보다 나은 세계의 창조에 참여하는 지엄한 사명을 지니고 있을 진대 문학인은 이 길을 매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생의 독백』, 『서울신문』 1956.8.24.)

또한 「개헌문제시비」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거론되던 ‘인민대중’이라는 용어를 개헌 시비에 휘말린 한국 민중, 즉 구체적인 시공간과 주체에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당대의 한국 민중을 이승만 정권이라는 힘에 저항하는 대항적인 힘이라는 분명한 주체로 호명하는 것이다.

이때 힘의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것이 개인의 자각이다. 즉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적절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성’이 필요하다. 『사상계』의 권두언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인간이 그 생활을 영위하여 나아감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각’한다는 일이다.”²⁷⁾, “인간사회의 향상 발전은 지력의 향상과 그 광범한 활용 - 비판, 반성, 기획, 창작-에 의거하며 정당한 비판은 그 추진력이 된다.”²⁸⁾와 같은 언설은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존재가 『사상계』가 독서 대중에게 제시하는 당대적 인간의 이상(理想)임을 말해준다.

“회담은 오분간에 끝나고 제각기 자기 고장을 향해서 아래 위로 떠났다. 도중에서 신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 이 혼돈의 허무 속에서는 제3존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시비를 내 어찌 책임질꼬냐.’” (『오분간』, 204면)

「오분간」의 위 인용문에서 “그 시비를 내 어찌 책임질꼬냐.”라는 구절은 현재 인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초월적인 권력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인간 세계,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외부적인 원조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라

27) 권두언 「사고와 행위」, 1953년 7월호.

28) 권두언 「비판정신의 창달을 위하여」, 1953년 10월호.

는 것이다. 다만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 요청된다. 이 새로운 주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격성 교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²⁹⁾ 특히 『사상계』의 창간호 권두언 「인간과 인격」의 첫 문단은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복잡하고도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며, 개념적·추상적·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실현을 위한 의지적이며 적극적인 활동과 반성능력을 소유하였으며, 각종 문화창조의 능(能)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한다. 즉 자각과 의지,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개인을 개발하려는 시도한 것은 당대 한국 사회가 염원하는 희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분간』에서 인류의 희망으로 제시되는 “제3존재”는 추상적인 희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설을 위의 언설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읽을 때 ‘제3존재’의 구체적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제우쓰의 자살」이 ‘신’으로 표현된 봉건적 권력에 대한 부정이었다면 『오분간』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봉건적 권력 개념이 설득력을 잃은 후 인간은 구심점 없이 흩어져 각자 개인적인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한 번 더 일러둔다. 여긴 내 세계야. 저어기 인도 평야를 봐라. 기차가 달리지? 너희 나라에 기차가 있던? 그보다 더 큰 걸 보여줄까? 태평양 저쪽을 좀 보기로 합시다, 숙녀께서. 저 무력무력 일어나는 것이 원자탄이란 거야. 나는 유형지, 이 지상에서 내 자유를 창조하고 내 방향을 결정하고 내 환상을 구현했어... 저런 것두 신이 주신 거라구 공을 가로채진 않겠지..”

29) 권두언 「인간과 인격」(1953년 4월호)은 인격성 교육은 꼭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인격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와 질서」(1953년 5월호)는 바른 생각을 위해서 깊은 교양과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196면)

위 인용문에서 “내 세계”, “내 자유”, “내 방향”, “내 환상”이라는 단어와 “창조”, “결정”, “구현”이라는 단어는 결정권자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낸다. “기차”, “원자탄” 등 기술적 진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상에는 프로메테우스균(菌)이 우글우글하는 판이다.”(197면)라는 구절처럼 그것은 마치 병균처럼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인간 세계는 구석구석까지 억압과 비리, 범죄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을 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혼돈의 허무”이다.

그런데 이 ‘혼돈의 허무’는 1950년대의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펼쳐진다. 아인슈타인의 죽음 이후로 펼쳐지는 혼돈의 파노라마, 특히 댄스 열풍, 기독교의 세속화와 비구승과 대처승의 갈등, 공무원과 기업인의 결탁과 특혜 대출, 들끓는 강력 범죄와 향락에 빠진 대학생의 모습은 1950년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한국 사회의 단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와 함께 서술되는 교황 비오 12세와 종교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 사르트르의 영향력, 원자탄 사용 논란 등은 당대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바오다이와 나세르는 각각 베트남과 이집트의 왕정 폐지와 공화국의 성립, 즉 봉건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탈봉건 이후 다시 권력 다툼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소설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단상은 분명한 당대성을 기반으로 한다. 탈봉건 이후의 혼란이 그것이다. 그리고 혼란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눈앞의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사상계』 내부에 공유된 것이었다. “상호경쟁과 이해에 의한 분합의 수라장화된 현대사회”³⁰⁾는 “고립적으로 강조되던

인간관과 세계관의 수립과 이에 가해진 근대 주지주의·실용주의 교육은 현대의 찬란한 문명을 보여주는 반면, 오늘에 이르러 인간성을 분화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³¹⁾한 결과이다. 탈봉건 이후 공동체성을 잃고 과도하게 개인화되면서 사리사욕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혼돈”은 그러므로 ‘지’의 전환, 즉 지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요청한다. 그것을 담보한 존재가 바로 “제3존재”이다.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 인간상의 모습이다.

3. 행동하는 개인과 허무주의 배격 - 「바비도」

그렇다고 푸로메슈스는 결코 왕기(王器)는 아니다. 재치 있는 회계관은 될지언정 왕기는 못된다. 지(知)로 시종할 뿐 덕이 없다. 결국 지상은 무주(無主)의 땅이 될 것이다. 분립 항쟁의 마당이 될 것이니, 나도 푸로메슈스도 아닌 무지의 유령이 역센 팔뚝으로 휘감아쥐고 짓밟아 제패할 것이다. (『오분간』, 198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김성환의 소설에서 구현되는 양상은 『오분간』에서 「바비도」로의 이행 속에서 발견된다. 『오분간』에서 작가는 “무지의 유령”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탈봉건 이후의 혼란은 ‘무지’와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 펴보았듯 『사상계』의 지식인들은 혼란의 원인을 공동체성의 상실과 인간성의 파괴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된 무지의 상태는 바로 공동체 속의 인간이라는 자각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상에 수반되어야 하는 지성

30) 권두언 「사회와 질서」, 1953년 5월호.

31) 권두언 「인간과 인격」, 1953년 4월호.

은 인간이 자기자신의 힘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세계 속의 한 존재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번역문 『실존주의의 몰락』³²⁾은 실존주의가 설득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실존주의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실존주의가 개인성을 과도하게 추구한 나머지 ‘종족으로서의 인간’을 부정해버렸다는 데에 있다. 인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기 내부로 윤택되면 자기의 행동이 불러올 사회적 결과에 대해 무책임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의는 성립될 수 없다. 정의는 개인에게 밀접하면서도 개인 바깥에 있는 것이기에 자기 바깥을 인식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정의도 성립하지 못한다. 실존주의는 개인성의 발견과 자유 개념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오해될 경우 존재의 부조리성이 압도적으로 부각되어 퇴폐와 허무를 조장하는 사상으로 왜곡되기 쉬웠다. 존재의 부조리함이 모든 방향성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 고립된 인간중심주의가 불러오는 것은 정의의 상실과 허무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국면 전환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는 과제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상태이다. 권두언 『바른 판단력을 촉구함』(1954년 3월호)에서 바른 판단력에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의식’을 언급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한편 ‘지성’에 이어 새로운 인간형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행동’이다. 1956년 5월 부통령에 장면이 당선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약진하면서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비로소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국민 개인이 가진 중요성도 더욱 강조된다.³³⁾ 사실 이러한 인식은 이전부터 표출되고 있었다. 인간성을 신뢰하면서 지성의 개발을 주장하던 『사

32) 『사상계』 1955년 3월호.

33) 윤상현, 앞의 글, 72-73면.

상계』의 논조는 1956년으로 들어오면서 사뭇 직접적으로 변한다. 1956년 1월호의 권두언 『1956년을 맞으면서』는 무지와 지를 대립시키면서 동시에 폭력과 정의를 대립시킨다. 두 가지 대립항이 겹치면서 뚜렷해지는 것은 지성에서 정의가 온다는 것으로, 개인의 지성이 가진 잠재력이다. 그리고 다음 호의 권두언 『밝은 질서의 출발점』에서는 현 시국에 대해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분명히 알아서 자기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 한 개 햇불이 되어 보자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지성은 직접적 행동의 시작점이 된다. 행동을 요청하는 언설은 이후로도 이어진다.³⁴⁾

『오분간』의 “제3존재”에서 『바비도』로의 변곡점 역시 그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제3존재”의 발전적인 실현태로서, 지성을 갖고 사회 속의 존재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개인이자 정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실천하는 개인의 모습이 바비도에게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초역사적인 배경 설정이 바비도를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시공간과 멀리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시공간 설정이 가진 현실과의 접점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겠다.

『오분간』에서 ‘신’은 기독교와 그리스 신화가 혼합된 모습으로 봉건 권력을 의미했다면 『바비도』의 ‘교회’는 권력화된 종교 집단을 의미한다. 함석헌의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³⁵⁾는 한국 사회의 혼란에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기생해서 권력과 돈을 탐하는 한국 기독교를 비판한다. 처음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국민적 양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기독교가 역사적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기독교를

34) 권두언 『민주주의를 기원한다』(1956년 9월호)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봉건잔재의 탈피, 백성의 자각,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주의시민으로서 분명한 행동을 촉구한다. 함석헌의 글 『할 말이 있다』(1957년 3월호)는 항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민중을 질타한다.

35) 함석헌, 『사상계』 1956년 1월호.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저자는 민중과 사회를 향한 윤리적인 노력 대신 개인적인 복과 이득을 얻는 데에 정신이 팔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일갈한다.

장준하는 『사상계』가 기독교 잡지는 아니기 때문에 함석헌의 글을 신는 것을 상당히 망설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문제 제기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글을 신기로 한다.³⁶⁾ 이 글에서 수행하는 기독교 비판은 위에서 본 실존주의 비판을 참조할 때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다시 말해 지나치게 개인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오분간』에서 묘사된 세계와 『바비도』의 세계는 ‘혼돈의 허무’에 빠진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겹치게 된다. 그리고 바비도는 그러한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제시된다.

일찍이 위대하던 것은 부패하였다.

사제는 토끼 사냥에 바쁘고 사교는 회개와 순례를 팔아 별장을 샀다.

살찐 수도사에게 외면하고 위클리프의 영역 복음서를 몰래 읽는 백성들은 성서의 진리를 성직자의 독점에서 뺏고 독단과 위선의 껍데기를 벗기니 교회의 종소리는 헛되이 울리고 김빠진 찬송가는 먼지 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였다. 불신과 냉소의 집중공격으로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교회를 지킬 유일한 방패는 이단분형령(異端焚刑令)과 스미스피일드의 사형장뿐이었다. (281)

……힘이다! 너희들이 가진 것도 힘이요, 내게 없는 것도 힘이다.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고 약한 것이 문제다. 힘은 진리를 창조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자기집 문지기 개로

36) 장준하, 앞의 글, 307-308면.

이용한다. 힘이여, 저주를 받아라! (283)

이 소설은 기독교의 변질을 가리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성직자들은 종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잊고 사리사욕에 매달리고 있다. 한편 백성들은 “위클리프의 영역 복음서를 몰래 읽”음으로써 그들의 “독단과 위선의 껍데기를 벗”긴다. 즉 민중 쪽에서 지성의 획득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힘에 대해 자각하는 구절은 그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힘’의 문제, 즉 권력의 불균형에 기인함을 깨닫게 되고 신성불가침한 권력은 있을 수 없으며 그에 대항하는 힘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됨을 보여준다.

“신성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조작이죠. 하여튼 크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당신과 나는 자리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졸들이 달려들어 바비도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였으나 사교는 손짓으로 말린다.

“바비도, 한 마디 회개한다고 말할 수 없느냐?”

사교는 애걸하는 어조였다.

“당신은 내게 강요하는 것을 모두 옳다구 확신하십니까?”

(286)

앞서 『제우스의 자살』에서 제우스가 권력은 관념의 조작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 개구리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제 바비도는 스스로 그것을 말하며 저항의 근거로 삼고 있다. 사교는 처음에는 바비도에게 강압적이었지만 바비도의 의연한 대응에 맞닥뜨리자 태도가 일변하여 마지막에는 애원하기에 이른다. 태자 역시 바비도에게 목숨을 살려줄 테니 마음을 바꾸라고 청하지만 바비도는 사교와 태자의 회유를 물리치고 화형당하는 길을 택한다. 그들이 바비도를 회유하는 이유는 바비도의 죽음이 표면적으로는 권력에 의

한 희생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비도가 사교에게 던지는 질문에 사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옳다는 확신, 즉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그것을 인정해주는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권력이 있어 그 근거는 피지배자 외에 없다. 따라서 바비도가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반감이나 반항이 아니라 그 근본을 흔드는 행위가 된다. 마치 바비도가 태자의 선조가 왕위를 찬탈했음을 지적하여 태자라는 지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든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제우스의 자살』에서 개구리들이 제우스의 권위를 부정하자 제우스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비도에게 내려진 화형 선고는 권력이 허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에 불과하다. 바비도가 화형당하는 것은 사교와 태자가 그를 설득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비도가 죽지 않도록 회유하는 것이다.

바비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 때문에 이 작품은 허무주의적 혹은 패배주의적 결말로 해석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위의 해석을 통해 본다면 이 작품은 허무나 패배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더불어 이러한 행동 양상은 이미 당대에 요청되는 저항의 형태로 언급되고 있었다. 『항거의 정신 - K군에게 주는 회신』³⁷⁾은 시골의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K군에게 저자가 답신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고민하는 K군에게 저자는 어려움 속에서 저항을 계속하는 “참된 인간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옳은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광인 취급을 받으며 압박, 박해, 기아,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비록 그것이 아무런 결실 없이 패배와 죽음을 가져오더라도 항거를 계속하는 것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³⁸⁾ 정의에의 타협 없는

37) 신상초, 『사상계』 1954년 10월호.

38) “거짓, 악행, 태만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현실 속에 있어서는 참되고

추구, 즉 바비도식(式)저항은 정의를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이미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죽음에 이르더라도 멈추지 않는 저항’이 허무나 자기 파멸과 거리가 멀다는 점은 “나는 인간이 진와 위, 선과 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든가 또 구별하더라도 도저히 뜻대로 실천할 수가 없다든가 하는 설을 믿고 싶지 않으며”³⁹⁾라는 구절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위의 구절은 다분히 실존주의적 허무를 의식한 구절이다. 고립된 인간의 허무와 패배가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객관화를 통해 정의를 알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비도가 어떤 현실 사회의 배경과 어떤 사상적 근거 위에서 축조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1956년 동인문학상 심사평에서 ‘정의’에 대한 의미부여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불의가 득세한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의 대항자”가 되어야 할 종교의 타락을 안타까워하고 사회의 최하위층에 속하는 바비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평에서 바비도가 ‘정의의 대항자’로 당대의 평자들에게 읽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인간 도의”를 보여주었다든가 “이 작품의 도덕에 감격”했다는 평가는 바비도가 보여준 행동이 당대 지속적으로 요청되던 실천의 견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질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간이 오히려 광인의 취급을 받고 바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아마 세속적으로 판단하면 참된 인간이 머리가 돈 사람처럼 보일 것이며 가장 현명한 이가 바보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 싶습니다. (중략) 불의와 악과 거짓과 타락에 대해 항거를 일삼아 나간다는 것은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항거는 십중팔구 처세에 있어서의 몰락을 의미하며 생활의 빈곤을 초래합니다. 진과 의를 위한 항거를 일삼다가는 현세에 있어서는 압박, 박해 그리고 기아와 죽음이 필히 내도(來到)할 것 같습니다.” (신상초, 『항거의 정신 - K군에게 주는 회신』, 39면)

“진과 의를 위한 항거란 비록 그것이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 쓰라린 패배와 죽음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할 썬 치고라도 오직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진리와 정의에 순(殉)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어려운 일인 동시에 가장 숭고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글, 40면)

39) 신상초, 위의 글, 37면.

4. 결론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잡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소설에도 기회를 제공해야 (중략) 지면의 심분지일쫘은 시와 문학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통신, 1954년 12월호)

“전에 없던 문화면이 들어 있고 더구나 매달 이 란을 두신다 하오니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독자통신, 1955년 2월호)

“독자 중 귀지에 문학면에 치중하여 달라고 원하는 분이 있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문학, 문예지는 많이 있사오니 귀지는 종래와 같이 아국(我國)의 유일한 사상잡지로서 문예 작품은 문예지에 넘기고 종래의 편집방법대로 약진하시옵기를 귀지 애독자로서 진언하는 바입니다.” (독자통신, 1955년 8월호)

“너무나 문학면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중략) 저도 문학을 좋아합니다만 사상계란 문학지와는 떠나 사상계다운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자통신, 1955년 9월호)

『사상계』가 문학 작품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자 독자통신란에는 문학면의 확충을 환영하고 독려하는 투고가 실린다.⁴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보다는 사상에 더 치중해달라는 요구가 대립한다.⁴¹⁾ 문예와 사상을 명백한 대립 관계에 놓는 것은 당시 다른 문학 잡지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학 잡지들이 “아무런 깊이가 없고, 케케묵은 십구세기적인,

40) 그 외에도 신인작품 등용에 대담한 학문 논문보다도 문화 전반에 신경써주길 바란다는 의견(독자통신, 1955년 5월호)과 농촌 생활에 문화면이 큰 도움이자 자국이 된다는 의견(독자통신, 1955년 9월호) 등이 눈에 띈다.

41) 나아가 문예란에 할애해달라든가 평이하게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권위 있는 특수자의 가치를 손상하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독자통신, 1955년 8월호)

작품 아닌 작품을 나열한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그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사상계』의 문학면에 “사상적 깊이도 있는 진정한 것”을 기대한다는 투고⁴²⁾에서 그들이 『사상계』에서 원하는 것이 다른 잡지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달리 말해 자신들이 목말라 하는 지적 욕구와 호응하는 문학, 자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으로서의 문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상계』의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았다. 예술과 사상을 아우르는 것이 『사상계』가 추구하는 문학의 목적이었다. 미의 창조는 사상을 재료로 하며 당대의 문학이 “하나의 새로운 인간 세계 탐구를 위한 과정적 모색기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인식, 그러므로 문학에 “지적이면서 모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⁴³⁾은 모두 문학의 사회적인 역할을 전제하고 지적이고 실험적인 문학을 긍정하는 것이다. 김성한의 소설은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요구가 만나 문학화된 결과물이다.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맥락 위에서 김성한의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알레고리적 성격 역시 계몽이라는 큰 목적 아래 취해진 방법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 알레고리는 독자로 하여금 지적 탐험을 하게 하여 심적 감흥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⁴⁴⁾ 즉 독자 반응의 측면에서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보다도 더욱 계몽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이 다른 지면에 발표한 작품들보다 유독 『사상계』에 발표한 작품들에게서

42) 독자통신, 1955년 6월호.

43) 1956년 동인문학상 수상작품선후평에 나온 의견들이다. “예술은 미의 창조라고 한다. (중략) 이 미는 굳건한 이념과 이를 미화하는 탁월한 기술에 의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념은 곧 철학이요 철학은 인류의 유구한 생활에서 얻어진 진리다.”(이무영), “오늘의 문학은 하나의 새로운 인간세계 탐구를 위한 과정적 모색기에서 진동하고 있다.”, “하나의 문학세계를 구성해가는 지적이면서 모험적인 노력이 부단히 요청되는 오늘이다.”(이헌구)

44) John MacQueen., 송낙헌 옮김, 『알레고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3-4면.

알레고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 역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성한 소설의 알레고리적 특성은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작가 김성한이 점유하고 있던 독특한 위치와 그의 소설이 잡지 『사상계』와 맺고 있는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당대성과 구체성을 갖춘 주체의식을 도출하였다. 그러한 주체의식 아래에서 알레고리를 읽을 때 이전 논의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 시민 계몽의 방법론으로 실천적인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대중을 시민으로 호명하는 시민 계몽의 대의는 잡지 『사상계』를 장악한 명제였다. 독서 시장의 한가운데에 있던 잡지 『사상계』를 소비하는 독자와 공급하는 저자들은 같은 문제의식과 지적 욕구를 공유했다. 그 속에서 김성한은 『사상계』의 편집자이자 작가로서 예술의 욕구와 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험적 노력’을 감당했다. 언론인과 작가의 교차지점에 있던 김성한은 곧 1950년대 독서 시장과 문학의 교차지점이 되었기에 그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앞으로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성한, 「제우쓰의 자살」, 『사상계』 1955년 1월호.
 _____, 「오분간」, 『사상계』 1955년 6월호.
 _____, 「바비도」, 『사상계』 1956년 5월호.
 _____, 「서생의 독백」, 『서울신문』 1956년 8월 24일.

『사상계』 권두언, 독자통신

- 백철, 「신세대적인 것과 문학」 『사상계』 1955년 2월호.
 백철, 「신인과 현대의식」, 『조선일보』 1955년 10월 27일.
 신상초, 「민주 정치와 폭력」, 『사상계』 1953년 5월호.
 신상초, 「항거의 정신 - K군에게 주는 회신」, 『사상계』 1954년 10월호.
 신상초, 「법·국가·질서」, 『사상계』 1955년 5월호.
 이봉래, 「신세대론」, 『문학예술』 1956년 4월호.
 이호준, 「개헌문제시비론 - 개헌이 민권을 수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 검토」, 『사상계』 1954년 9월호.
 최재서, 「문학의 목적·기능·효용」, 『사상계』 1956년 5월호.
 함석헌,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상계』 1956년 1월호.
 함석헌, 「할 말이 있다」, 『사상계』 1957년 3월호.
 「동인문학상 수상작품선후평」, 『사상계』 1956년 5월호.
 「실존주의의 몰락」, 『사상계』 1955년 3월호.

2. 논문

- 김대영,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2) :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12(2),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3, 151-173면.
 김미란,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 방식 - 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8(2), 대중서사학회, 2012, 193-234면.

김진기, 『김성한 소설의 자유주의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245-270면.

윤상현,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 한림과학원, 2013, 47-83면.

이철호, 『『사상계』 초기 서북계 기독교 엘리트의 자유민주주의 구상』,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53-80면.

3. 단행본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이용성,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잡지 연구』, 한서대학교출판부, 2012.

장준하, 『장준하전집 3 : 민족주의자의 길』, 세계사, 1992.

『광복 50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 20주기기념추모사업회, 1995.

John MacQueen, 송낙헌 옮김, 『알레고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Abstract>

Two Aspects in the Publishing Market in
the 1950s and Writers' Response
—<Sa Sang Gye> and Kim Seong-han—

Jeong, Bo-Ram

In 1955, Kim Seong-han started to work as chief editor for <Sa Sang Gye>, being in charge of planning and editing the influential magazine. Given that <Sa Sang Gye> played a leading role in enlightening the public in the 1950s, he was at the center of the social enlightenment.

Enlightenment during the period, however, was not an one-sided movement. Readers also demanded that publishers should deliver useful but sophisticated knowledge. Kim Seong-han, who was both an editor of the magazine and a writer, produced literary works while trying to balance between desires as an intellectual and the needs from readers. His novels were the fruits of the effort, which reflected the two different desires of writers and readers in the publishing market at that time.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read his three short stories published in <Sa Sang Gye> - “The Suicide of Zeus,” “For Five Minutes,” and “Babido” - in parallel with other writers' works in the magazine over the same period and to understand correlations between them.



The three stories share the ideology that the magazine pursued, which was about entrenching democracy in Korea in the face of practical challenges in the 1950s, in a form of literature. The stories put an emphasis on the potential power of the people, and the characters represent people acting morally for the community. Furthermore, such interpretation enables readers to realize that Kim Seong-han's literary works are far from being abstract or escapist fictions but rather they faithfully depict the period and show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real-world.

Key words: Kim Seong-han, the 1950s, <Sa Sang Gye>, The Suicide of Zeus, For Five Minutes, Babido, enlightenment

투 고 일 : 2017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5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